

농촌 부엌공간에 대한 거주자 평가 및 요구

The Users' Needs and Evaluation on the Rural Kitchen Space

군산대학교 주거·가족아동전공
교수 유옥순
한남대학교 건축·토목·환경공학부
박사후 연수과정 최병숙

Dept. of Housing · Family & Child Studies, Kunsan National Univ.

Professor : Oksoon Ryou

School of Architectural ·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Hannam Univ.

Post-Doc. : Byoungsook Choi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부엌공간에 대한 거주자 요구 |
| II. 조사대상자 및 부엌공간의 특성 | V. 요약 및 결론 |
| III. 부엌공간에 대한 거주자 평가 |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prove that the rural kitchen style followed the urban's style and to find the different needs of rural western kitchen style from urban's through the evaluation of users. Interview data were collected by 100 residents in Chonbuk rural area and were analyzed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westernization of rural kitchen, as predicted about 12 years ago, ran after the urban's. In addition to the urban kitchen style, the users of the rural western kitchen desired 'the second kitchen' near to their Ma-dangs and main kitchens. The safety, convenience and comfort of it were satisfactorily evaluated, especially the convenience factor was very important in the rural kitchen design. They also wanted to arrange the refrigerator for Kim-chi or the larger refrigerator in it and to plan the L-DK type.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예로부터 부엌은 주택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으로 가장 다목적으로 사용되었던 공간이다. 취사와 난방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조왕신을 모시는 종교적 공간이 되기도 하고 절구질 등을 하는 작업공간으로도 쓰였고, 부녀자의 목욕간과 아랫사람의 식사공간을 비롯하여 위안처와 글방 구실을 하였다(김광연 1997). 그 중에서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엌공간은 주택에서 인간의 기본적 요구 중 가장 일차적인 생리적 문제 즉, 식생활을 해결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다. 오래 전부터 주택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먹고, 저장하는 기본생활을 수용하기 위해서, 생활기기를 사용하는 공간이었고 특히 여성들의 주된 가사노동 장소였다.

주택이 사회문화적 현상 및 기술 변화와 상호관련성을 맺고 발전한다는 시각에서 보면, 근대화¹⁾와 산업화는 부엌의 공간적 위계를 향상시켰으며 과거 여성 고유의 단순한 가사노동에서 벗어나 가족 모두의 중심적인 생활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이현정 1994). 즉 편리성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에 의해 과거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가사노동의 시간과 양을 줄일 수 있는 각종 기기, 시설·설비를 수용하여 부엌공간을 가장 많이 변화시켜왔다. 이러한 양상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해 온 전세계 부엌공간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으며, 특히 우리 나라 부엌공간의 시대 흐름²⁾을 살펴보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농사를 짓고 있어³⁾ 농촌주택은 근대화와 산업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 추이를 따르면서도 도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최찬환(1986)은 일정한 시간차를 두고 농촌주택이 도시주택을 모방하고 있지만 생활양식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유옥순(1989)은 농촌 부엌의 경우 도시의 입식형 부엌을 모방하고 있으나 농촌생활상의 특징 때문에 입식부엌 옆에 제2의 부엌이 설치되고 입식부엌만의 불편함을 이곳에

서 해결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80년대 중반 이후 농촌 주택 및 부엌공간에 대한 연구 경향은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사회변화와 물리적 공간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공간의 변경 및 변화추세와 현시점에서의 공간적 문제 해결을 주로 파악하였다(지 순, 윤복자, 윤정숙, 최병숙, 박은선 1991a, 1991b; 엄인섭 1999). 그리고 이들 연구는 당시 향후 농촌 부엌공간의 입식화 계획방향을 제안하였으나, 입식화에 대한 거주자 평가 및 진단은 다루지 않고 있다. 이에 농촌생활을 반영할 수 있는 부엌의 계획 방향을 거주자 평가를 통해 진단하고, 농촌의 입식 부엌 계획시 고려할 점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농촌부엌이 입식형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한 이래 오랜 시간이 경과한 현재 농촌 부엌공간이 과연 도시의 입식형 부엌을 모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렇다면 이러한 부엌 형태에 대해 거주자는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봄으로써 농촌지역에서의 입식형 부엌을 진단하고자 한다.

- 1) 주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사노동의 형태는 근대화를 통해 다음과 같이 변모를 하였다. 첫째, 가사노동의 담당자는 전근대의 노비적 상태의 대리인에서 주부로 옮겨졌다. 둘째, 가사노동의 시간과 양을 줄일 수 있는 각종 설비 즉, 상·하수도, 난방, 근대적 부엌시설물, 각종 부엌용 가전제품들이 대중에게 보편화되었다. 셋째, 취사연료의 혁명으로 값싸고 손쉽게 공급될 수 있는 가스 연료가 보급되었다.
- 2) 일반적인 부엌의 변화를 보면 전통주택에서는 흙바닥에 부뚜막이 있고, 취사난방용으로 나무로 불을 피우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음식을 만드는 곳이었으나, 최근 주택의 부엌은 실내공간에 위치하여 상하수도와 가스·전기가 갖추어져있고, 싱크대 및 작업대, 식탁,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의 가전제품이 잘 갖추어져 있어 음식을 준비하고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곳으로 인식되어있다.
- 3) 1996년말 통계 기준, 총 농가수 1,480호 중 전업농 836호(56.5%), 겸업농 644호(43.5%)로 보아 농촌에서는 아직까지 농업 의존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 농촌주택의 부엌공간에 관한 물리적 형태와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을 파악하고, 둘째, 거주자의 부엌공간에 대한 만족도 평가와 유의성 검증을 통해 관련 변수를 파악하며, 셋째, 입식형 부엌에서 생활해 본 경우 농촌생활을 고려한 특별 요구를 파악하고자 한다.

3. 선행연구 고찰

1) 부엌공간의 평가 내용

부엌공간에 대한 평가는 이제까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도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거환경 평가에서 일부 다루어지고 있었다. 안경환(1989)은 3세대 가족형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거환경 평가에서 평가내용을 행태적 인자, 기능적 인자, 기술적 인자로 구분하고, 부엌공간과 관련된 평가내용은 기술적 인자 중 환기에 대한 것이었다. 이 훈(1985)은 아파트 주거환경의 평가내용을 물리적 속성, 실내환경 속성, 사회물리적 속성, 편의시설 속성, 관리경제적 속성으로 구분하였고, 부엌과 관련된 평가내용은 실내환경 속성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부엌 싱크대 작업대의 편리성, 환기, 도시가스의 안전성이었다. 그리고 전영미(2000)의 문헌 분석에 따르면 주택 내부공간을 중심으로 한 평가항목은 채광, 환기, 통풍과 관련된 건강차원의 안전성 및 보건성, 편리성, 쾌적성이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부엌의 평가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 본 연구에서는 부엌공간의 평가내용을 계획 및 설계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안옥희, 윤재웅, 배정인(2000)은 부엌설계의 요점으로 기능성, 청결성, 안전성, 정서성 항목을 제안하였다. 기능성은 취사에 편리한 작업대의 배열과 수납공간의 확보 개념, 청결성은 위생적 측면에서 실내환경오염과 관련된 환기시설 및 청소가 용이한 마감재 사용의 개념, 안전성은 물, 불사용의 위험 및 미끄러움 방지와 관련된 개념, 정서성은 가사노동이 즐겁고, 쾌적하고, 깨끗한 분위기의 부엌을 이루는 개념이라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부엌공간의 평가는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안옥희외 3인(2000)과 전영미(2000)의 개념을 종합하여, 안전성, 기능성, 쾌적성으로 평가내용을 정하였다. 이에 작업의 효율성이 증시되는 편리성, 기능성의 개념은 기능성이라 명명하였고, 건강, 미, 안락한 환경 조성과 관련된 청결성, 정서성, 보건성, 쾌적성의 개념은 쾌적성이라 하였다. 그리고 사용자에게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측면을 안전성이라 하였다.

2) 부엌공간과 관련 요인

기존 연구를 검토한 결과 부엌공간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찾을 수 없었으므로 부엌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이현정(1993)은 도시 부엌을 대상으로 가구특성 요인 중 주부의 연령, 주부의 직업, 가족생활주기, 가족수, 주택특성 요인 중 주택규모, 주택유형, 부엌특성 요인 중 하부수납장 개수, 상부수납장 개수, 작업대 배열형태가 부엌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하였다. 윤복자와 유옥순(1989)은 부엌공간 유형의 변화요인으로 거시적 요인의 정부 시책, 미시적 요인으로 남편의 학력, 농한기의 취사연료, 식사장소와 방법, 난방연료라고 하였다. 이 훈(1985)은 실내환경 속성 평가에서 연령, 직업, 소득의 가구특성 요인은 낮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였고, 건물의 향, 시중거래가격, 아파트 크기와 같은 건물특성 요인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엌공간 평가와 관련 요인을 탐색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거주자의 가구특성, 부엌특성 및 주택특성, 농사일과 관련된 생활적 특성으로 한정하였다.

3) 부엌 공간의 요구

도시 및 농촌 부엌공간에 대한 거주자 요구를 파악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양지안(1999)은 소집단 워크샵 패널방법을 이용하여 도시주부의 부엌공간에 대한 요구를 제시하였다. 조리와 식사는 물론 주부의 취미활동, 손님접대, 자녀들의 숙제, 독서, 남편과의 대화 등 다양한 생활을 수용하기 위한 부엌크기의 증대, 수납공간의 부족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개선, 그리고 리빙센터로 개방된 부엌공간

및 기능적인 부엌공간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부엌크기의 증대는 다른 공간을 희생시키면서 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다. 류호찬(1998)은 대구시의 신세대 부부를 위한 부엌가구에 관한 연구에서 거주자는 부엌을 거실 다음으로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현주택에서 식당 겸용 부엌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독립형 부엌과 거실 식당 겸용 부엌이 많았다고 하였다.

지 순외 4인(1991a, 1991b)은 당시 농촌 부엌공간의 물리적·생활적 변화를 통해 거주자의 요구를 파악한 결과, 실내공간과 바닥의 단차를 없애고 실내와 동일한 바닥마감재(비닐류)의 사용, 부엌내상·하수시설 설치, 난방설비를 부엌 밖으로 이전하여 취사와 난방을 분리하였고, 부뚜막을 없애고 공장제품의 입식형 작업대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입식 부엌이외에 몰사용이 가능하고 가열시설을 갖춘 공간에 대한 요구와 좌식 혹은 입식의 DK형 부엌에 대한 요구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Ryou & Choi(1999)는 도시와 다른 부엌공간의 요구를 분석한 결과, 집안 대소사를 치르기 위한 제2 부엌 공간, DK형 부엌, 충분한 수납공간 및 다락공간, 김치전용냉장고의 요구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부엌공간의 요구는 크기, 수납공간, 기기 및 시설·설비, 제2 부엌, 평면 배치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 부엌의 입식화를 전제로 도시 부엌과 다른 요구 및 필요한 생활재 그리고 평면 배치상의 연결공간에 대한 요구로 한정하였다.

4.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농촌 부엌공간에 대한 거주자 평가 및 요구 그리고 부엌공간의 물리적 현상(現象)을 파악하여야 하므로 현지조사 방법을 채택하였다. 조사대상 농촌은 연구자의 접근이 용이하고 우리나라에서 농업비중이 높은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하였다. 예비조사는 전북 군산시, 부안군, 정읍시를 중심으로 1999. 7. 8~7. 13에 37사례에 대해 실시하였고, 그 결과 면접용 설문지를 일부 수정하였다. 본 조사는

1999. 7. 20~8. 14까지 시군 통합 농촌지역을 포함하여 11개 시군에서 103호의 주택을 방문하여 면접 및 관찰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중 100사례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면접 및 관찰은 훈련된 주거·가족아동 전공 조사원 10명을 통해 반구조화된 도구를 기준으로 실시하였고, 응답방식은 개방형으로 조사자가 직접 기입하였다.

조사 내용은 복잡한 경우 응답자의 무성의한 대답을 고려하여 거주자 일반적 사항, 농촌부엌의 실태, 부엌공간에 대한 거주자 요구 및 평가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구성하였다. 부엌에 대한 안전성, 기능성, 쾌적성 및 전체 만족도 평가는 4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5점 리커트 척도의 경우 응답이 중간 값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므로 4점 리커트 척도를 채택하였다. 도구의 신뢰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부엌공간 평가에 관한 문항의 내적 일치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신뢰도 계수(α)는 0.88이었고, 안전성의 신뢰도계수(α)는 0.76, 기능성의 신뢰도계수(α)는 0.83, 쾌적성의 신뢰도계수(α)는 0.73이었다. 이러한 신뢰도 계수는 사회조사 분석에서 판단하는 일반적 기준이 0.6이상이므로 자료의 신뢰도는 인정되었다고 본다. 수집된 자료는 먼저 정성적 분석으로 유목화한 후 정량적 분석을 하였다. 한편 정성적 분석과정에서 연령 및 소득, 부엌유형의 유목화 기준은 선행연구(김태련, 장희숙 1987; 지 순외 4인 1991b; 통계청 1999)에 근거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설정하였다. 정량적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χ^2 -검증과 t-검증, F-분석을 하였다.

II. 조사대상자 및 부엌공간의 특성

1. 조사 대상자 특성

농촌 부엌에 대한 요구 및 평가를 파악하기 앞서 응답자의 배경을 조사한 결과(표 1), 평균 연령은 53세였고 전체적인 연령분포⁴⁾는 45세 이상 60세 미만의 성인 후기에 해당되는 연령층이 43.0%, 60세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구 분	내 용	빈도(%)
연 령 (N=100)	45세 미만	24(24.0)
	45세 이상 60세 미만	43(43.0)
	60세 이상	33(33.0)
학 령 (N=100)	무 학	17(17.0)
	초등학교(서당) 졸업	27(27.0)
	중학교 졸업	31(31.0)
	고등학교 졸업 이상	25(25.0)
소 득 (N=88)	1000만원 미만	30(34.1)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37(42.0)
	1500만원 이상	21(23.9)
거주기간 (N=100)	10년 미만	30(30.0)
	10년 이상 20년 미만	11(11.0)
	20년 이상 30년 미만	25(25.0)
	30년 이상	34(34.0)

이상이 33.0%로 농촌의 고령화 현상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2000년에 7.1%로 전망하는 것과 비교하면 농촌의 인구는 상당히 고령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학력 수준은 무학의 비율이 가장 낮았고, 중졸 이상의 학력을 지닌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가 약간 넘는 56.0%이었다. 소득 수준은 연평균 1,112만원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1999년 농촌의 연평균 가구 소득 2,232만원과 비교하면 매우 낮았고, 도시⁵⁾와 비교하면 더욱 낮은 수준이었다. 1500만원 미만의 소득자가 전체의 66.1%이었다. 현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약 23년이었고, 20년 이상 거주자는 전체의 59.0%로 한 주택에 매우 장기간 거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표 1>에서와 같이 연령, 학력, 소득, 거주 기간은 각 항목에 따라 어느 정도 고른 분포를 하고 있으므로, 조사대상자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집단으로 구분 지을 수 있어 조사대상자 특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타 변수와의 유의적 관계를 파악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2. 부엌공간 물리적 형태 및 사용실태

부엌공간의 물리적 형태를 파악한 결과(표 2), 과

<표 2> 부엌공간에 대한 개요

부엌관련사항	내 용	빈도(%)
개조여부 (N=100)	개조하였음	68(68.0)
	개조하지 않았음	32(32.0)
부엌개조 형태 (N=68)	주택 개축시 개조	16(23.5)
	부엌공간만 전체 개조	45(66.2)
	부엌공간 일부 개조	7(10.3)
바닥마감재 (N=100)	거실공간과 동일	87(87.9)
	거실공간과 다름	12(12.1)
바닥단차 (N=100)	거실공간과 단차 유	46(46.0)
	거실공간과 단차 무	54(54.0)
부엌유형 (N=100)	도시형 입식	53(53.0)
	농촌형 입식	34(34.0)
	재래식	13(13.0)

반수 이상의 부엌은 개조된 상태(68.0%)였고, 개조 형태는 부엌공간만 전체 입식으로 개조한 경우가 전체의 66.2%이었다. 그리고 주택을 개축하면서 부엌을 개조한 경우가 23.5% 이었는데, 이는 엄인섭(1999)의 연구에서와 같이 1980년대 후반 신축주택의 등장으로 본격적인 입식부엌이 정착되었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여진다. 즉 주택의 물리적 구조체의 노후화로 인해 부엌 개조만으로는 현대식 생활을 수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주택개축시 입식 부엌으로 계획하는 것이다.

부엌의 입식화 개조 경향을 나타내는 거실과의 관계에서 바닥 단차와 마감재를 파악한 결과⁶⁾, 마감

- 4) 연령의 분포는 가족생활주기와 인간발달단계를 고려, 성인기와 노인에 따라 구분하였다. 평균 연령이 53세 인 점을 고려 Buhlerdhk Massank(1968)의 발달단계와 조부회 외 2인(1989)이 분류한 발달단계를 종합적으로 고려 45세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 5) 통계청이 발표한 '99년 2/4분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2,102천원, 연간소득은 약 2,522만원으로 계산된다.
- 6) 윤복자와 유옥순(1989)은 물리적 측면의 부엌 변화요인으로 설비 및 시설(급배수 및 입식가구), 마감재, 구조(단차, 아궁이)을 중심으로 입식화를 파악하였고, 지 순 외 4인(1991)은 작업대시설, 난방분리와 바닥구조, 바닥 재료가 부엌의 입식화와 관계되는 요인이라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엌이 실내 공간으로 입식화되는데 주택의 구조적 지원이 있어야 하는 구조·재료 측면으로 제한하여 파악하였다.

재는 거실공간과 동일한 경우가 다수였고(87.9%) 거실 바닥과 단차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거의 유사하게 분포하였다.

이러한 개조형태, 바닥마감재 및 단차를 중심으로 조사대상 부엌공간의 물리적 형태를 유형화한 결과, 도시형 입식(53.0%), 농촌형 입식(34.0%), 재래식(13.0%)으로 분류되었다. 그 중 도시형 입식이 가장 많이 분포하였는데, 이는 12년전 윤복자와 유옥순(1989)의 연구에서 예측한 바대로 입식형 부엌이 보편화되었고, 그 형태는 시차를 두고 도시의 부엌을 모방하는 것이었다. 도시형 입식부엌은 도시의 부엌과 같이 싱크대와 작업대의 가구가 설치되고 실내 거실과 동일한 바닥높이와 마감을 한 부엌이다. 농촌형 입식 부엌은 싱크대와 작업대의 가구가 설치되었고 거실과 동일한 마감을 하였지만 거실과 단차가 있거나, 마감이 다르지만 단차가 없는 경우)의 부엌이다. 재래식 부엌은 거실과 단차가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부엌 유형 중 입식이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직 농촌지역에는 아궁이와 다락이 설치되어 실내공간과의 단차가 있는 주택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여겨진다.

선행연구 결과(Ryou & Choi, 1999) 농촌 거주자는 부엌공간에서 김장·장담그기 등의 비일상적인 부엌일을 수행할 수 있는 제2 부엌을 많이 요구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주로 비일상적인 부엌일을 조사 분석하였다(표 3).

음식장만과 관련된 부엌일 중에는 명절 및 제사는 주로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생신, 계모임, 농사일과 관련된 음식장만은 집에서 행해지는 비율이 낮아졌다. 특히 농번기의 음식장만은 50.5%로 낮았는데, 이는 예비조사에서 파악된 바와 같이 최근 일꾼들이 집에서 장만한 음식보다 빵과 우유, 짜장면 등을 선호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잔치시 음식장만 일은 편리성을 추구하는 식생활의 사회화 추세에 힘입어 주로 읍내 식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비율이 다소 낮아졌다고 여겨진다. 회갑 잔치 등은 노인의 평균 수명이 연장됨으로써 직계가족만이 모여 간소하게 지

〈표 3〉 부엌에서 행해지는 비일상적 일

부엌의 비일상적 일	행위발생 여부(N=97)	
	한다	안한다
농번기 음식장만	49(50.5%)	48(49.5%)
명절·제사 때 음식장만	83(85.6%)	14(14.4%)
어른 생신, 회갑 및 장례, 계모임 시 음식장만	68(70.1%)	29(29.9%)
김장 담그기 및 기타 관련 일	71(73.2%)	26(26.8%)

낸다고 한 점으로 보아 크게 음식장만을 하는 행위가 줄어들었다고도 볼 수 있다. 장례와 관련해서도 전국적으로 사망장소가 병원 영안실을 이용하는 추세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조선일보 1995. 10. 25), 농촌지역에서도 영안실에 빈소를 마련하고 음식까지도 해결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으므로 과거 집에서 음식장만을 하던 행위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김장·장담그는 행위는 다른 비일상적 행위 보다 다소 높았는데, 이는 우리의 식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김치와 된장, 고추장을 이용한 음식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과거의 제조 방식보다는 편리성을 추구하지만 발효식품만은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의식과 우리의 좋은 점을 살려 고유의 독특한 식문화를 계승하려는 의식이 남아있기(이경애, 장영애, 김우경 1993; 구난숙 1995) 때문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부엌 계획시 고려되어야 할 비일상적 부엌일은 고유명절의 가족 모임을 위한 음식장만과 전통 식품인 김치와 장 담그기의 행위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비일상적 부엌일을 지원하기 위해 요구되는 용품의 수납공간을 파악한 결과, 응답자의 68.4%가 주로 부엌공간을 이용하였고 일부 외부 창고(37.0%)와 제2 부엌(25.0%)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7) 일부 상가주택의 경우 거실 공간이 없으며 상가와 동일한 평면상에 부엌이 설치되었지만, 마감재는 실내공간(방)과 다르다.

III. 부엌공간에 대한 거주자 평가

1. 부엌의 안전성, 기능성, 쾌적성에 대한 평가

응답자 자신이 생활하는 부엌공간을 안전성, 기능성, 쾌적성 측면에서 4점 척도인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비교적 그렇지 않다, 3점 비교적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로 평가한 결과(표 4), 안전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2.91), 기능성의 평가가 가장 낮았으며(2.60), 전체적인 부엌 공간에 대해서는 비교적 만족하는 긍정적인 평가(2.91)를 나타내었다.

안전성 평가 항목 중에서는 가스 사용(3.28)에 대해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하였고, 미끄러질 우려(2.55)에 대해서는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기능성 면에서는 일상적 부엌일을 하기에 공간 규모가 적합

하다는 것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나, 비일상적인 부엌일과 관련하여 작업대 배열 및 공간의 규모는 낮게 평가하였다. 이는 현재의 부엌 공간이 일상적인 취사작업을 수행하는데는 크게 불편하지 않지만, 비일상적인 음식장만이나 김장·장담그기 일을 하는데 불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쾌적성 면에서는 주부가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것과 일하는데 밝다는 항목에서 높게 평가하였고, 가구·시설 및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하였다. 거주자는 과거의 부엌에 비해 입식화 되면서 상대적으로 편안하고 밝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거주자에게 부엌 평가 시 안전성, 기능성, 쾌적성 중에서 중요시 여기는 항목을 질문한 결과, 기능성(52.0%)을 가장 중요시하였고 다음으로는 안전성(35.0%)과 쾌적성(13.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부엌 상태의 평가에서 기능성이 가장 낮게 평가되었으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된 것이, 농촌부엌 계획시 편리하게 일할 수 있는 기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도시주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양지안(1999)의 결과에서도 기능성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같은 맥락으로써, 부엌공간 계획에서는 무엇보다 부엌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농촌의 경우는 앞서 일상적인 것 뿐 아니라 비일상적인 부엌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를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능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더불어 조사결과 식사공간과의 접근성에 대한 평가가 총 평가값 보다 다소 낮으므로 평상시 식사공간과의 접근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표 4〉 농촌 부엌공간에 대한 거주자 평가

항 목	평가 내용	평 균
안전성	가스 사용	3.28
	화재 위험	3.12
	넘어짐	2.68
	미끄러짐	2.55
	평 균	2.91
기능성	일상적인 부엌일을 하기에 작업대 배열의 편리	2.97
	비일상적인 부엌일을 하기에 작업대 배열의 편리	2.21
	일상적인 부엌일을 하기에 공간(규모) 적합	3.00
	비일상적인 부엌일을 하기에 공간(규모) 적합	2.17
	식사공간과의 접근 용이성	2.63
	평 균	2.60
쾌적성	편안한 작업환경	3.06
	안락한 식사환경	2.70
	환기가 잘되는 환경	2.91
	밝은 조명 환경	3.06
	가구·시설 및 마감재 등 인테리어가 좋음	2.36
평 균	2.82	
부엌공간 전체에 대한 만족		2.91
총 평가 평균		2.78

2. 부엌의 평가와 관련 변수

거주자 특성 및 부엌의 물리적 특성, 비일상적 부엌일, 비일상용품의 수납을 독립변수로 하여 부엌에 대한 거주자의 주관적 평가와 관계가 있는 요인을 탐색적 차원에서 파악하기 위하여, F-분석 및 t-분석의 유의성 검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5).

〈표 5〉 거주자 및 부역특성에 따른 부역 평가

구 분	변 수	부역 평가					비 고
		안전성	기능성	쾌적성	만족도	총 평가	
거주자 특성	연 령	6.557**	4.263*	1.139	3.926*	0.476	F값
	학 령	0.412	1.498	1.207	0.746	0.18	F값
	소 득	0.120	0.023*	0.623	0.366	0.139	F값
	거주기간	2.130	2.884*	0.913	2.418	2.050	F값
부역물리적 특성	개조여부	0.088	1.485	2.200**	1.838*	2.257**	t값
	개조형태	9.031**	1.227	4.405*	4.151*	7.912**	F값
	바닥 마감재	3.969**	5.035**	5.252**	5.556**	6.230**	t값
	바닥단차	-2.184*	-3.410**	-2.357*	-3.268*	-3.307**	t값
	부역유형	6.444**	14.165**	14.603**	15.333**	22.000**	F값
비 일상 부역 일	농번기 음식장만	-0.467	-0.331	2.340*	1.095	0.042	t값
	명절 음식장만	0.043	1.067	1.778	1.383	1.240	t값
	생일 음식장만	1.906	0.277	2.487*	2.113	0.520	t값
	김장 장 담그기	0.671	-0.427	2.100*	1.111	-0.167	t값
비일상용품 수납	외부창고	0.958	0.383	2.768**	1.943	1.019	t값
	제2 부역	-0.341	1.480	0.175	0.431	0.337	t값
	부역공간	0.320	-0.247	-1.093	-0.678	0.778	t값

* P< 0.05 ** P<0.01

연령, 소득 및 거주기간에 따라 부역의 기능성 평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 쾌적성과 총 평가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기능성과 만족도 평가는 0.05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나왔고, 안전성 평가는 유의수준 0.01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거주자 특성 중 연령 변수가 부역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소득 및 거주기간 변수와 안전성, 쾌적성, 만족도 및 총평가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기능성 평가는 유의수준 0.05 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학력 변수는 부역평가에 전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부역의 물리적 특성 중 바닥마감재, 바닥단차, 부역유형에 따라 부역의 안전성, 기능성, 쾌적성, 만족도 및 총 평가에 대해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그 외 개조여부 및 개조형태에 따라서도 부역의 쾌적성, 만족도, 총 평가에 차이가 있었고, 개조형태는 안전성 평가에서 유의적 차이를 나타냈다. 더욱이

개조여부 및 형태 변수는 개조를 하되 부역공간만을 입식으로 개조한 경우보다는 주택 전체 공간과 더불어 입식으로 개조한 경우를 더 높게 평가하였다. 부역만 입식으로 개조한 경우 총 평가값이 2.80이었지만, 주택과 함께 개조한 경우 총 평가값은 3.19이었다.

부역평가와 관련이 있는 비일상적인 부역일 및 용품수납 변수를 파악한 결과, 농번기, 생일 등의 음식장만, 김장·장담그기 생활 및 외부창고 이용은 부역의 쾌적성 평가에만 차이를 나타낸 변수로, 비일상적인 부역일을 집에서 하는 경우 부역의 쾌적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즉 거주자는 비일상적인 일까지 부역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어 부역이 넓다고 느꼈고, 외부창고에 수납을 하는 경우는 부역용품뿐 아니라 농촌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물품을 수납할 수 있다는 공간적 풍요로움을 느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비일상적인 부역일 및 용품 수납 변수는 부역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농촌 부엌평가에 유의적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물리적인 부엌 상태를 설명하는 부엌유형, 바닥마감 및 단차, 개조여부 및 형태였다. 부엌 평가의 일부 항목에서 유의적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거주자 특성 중 연령 변수였다. 그리고 부엌의 기능성 평가에만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소득, 거주기간이었고, 쾌적성 평가에만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비밀상적인 부엌일 및 수납공간으로 외부창고 이용행위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 훈(1985)의 연구 결과에서 가구특성 보다 건물특성이 실내환경 평가에서 더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IV. 부엌공간에 대한 거주자 요구

1. 특징적 요구

거주자에게 농촌 부엌이 도시와 다른 특징적 요구를 조사한 결과(표 6), 제2 부엌 설치(32.0%), 쾌적한 부엌(25.0%), 넓은 부엌(9.0%)을 지적하였으며 그중 '제2 부엌'의 설치를 가장 많이 요구하였다. 넓은 부엌의 요구는 도시 부엌공간에 비해 농촌의 부엌이 커야한다는 요구였다. 그러나 도시주택의 거주자도 현재 보다 큰 부엌공간을 요구하고 있어(양지안 1999), 공간의 기준은 서로 다르지만 넓은 공간을 요구한다는 것은 도시, 농촌 모두 공통적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도시주택에서는 다양한 생활을 수용하기 위해 부엌크기의 증대를 원한다고 하였다. 농촌의 '제2 부엌'에 대한 요구는 도시의 부엌용품

〈표 6〉 농촌 부엌의 특징적 요구

특징적 요구	빈도(%)
제 2부엌 요구	32(32.0)
넓은 부엌	9(9.0)
쾌적한(건강한) 환경	25(25.0)
계	100(100.0)

보관을 위한 다용도실 요구와 유사하기도 하지만, 비밀상적 일을 치르거나 우리 고유의 식생활 문화를 반영한 김장·장담그기를 위해 수도와 아궁이 시설이 있다는 점은 도시와 다르다. 이에 농촌 거주자는 본래의 입식부엌과 마당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제2 부엌'이 꼭 필요하다고 하였다. 엄인섭(1999)의 농촌주택 연구에서도 다목적 공간의 제2 부엌 설치 현상을 지적하였고, 이것은 도시 아파트에서 세탁 및 부엌 수납공간으로 이용되는 다용도실과는 다르게 반외부적 공간성격으로서 음식물 및 저장식품, 부엌용품을 보관하거나 큰일때 물을 다루는 일과 아궁이가 설치되어 가열행위를 하는 곳으로 이용되길 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부엌평가에서 기능성이 증시된 이유에서와 같이 제2 부엌 요구가 컸고, 다음으로 환기, 밝기, 파리제거, 작업대 높이, 식탁설치, 인테리어 등과 관련하여 위생적이고 효율적이며 아름다운 부엌의 쾌적한 환경을 요구하였다.

2. 필요한 생활재 요구

앞으로 필요한 부엌의 생활재를 파악한 결과, 가전기기(52.0%), 가구 및 설비(21.0%), 충분한 수납시설(7.0%)을 요구하였다(표 7). 특히 가전기기 중에서는 우리나라의 식생활을 고려한 김치전용냉장고 및 큰 냉장고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요구하였다. 서울을 중심으로 연구(윤복자, 박영순, 유옥순, 신영숙, 박남희, 조명은 1998)에서 구입을 희망하는 부엌기기 및 기구는 식기세척기, 가스오븐, 식품찌꺼기 처리기, 의류건조기, 대형 냉장고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이 큰 냉장고를 요구하는 이유는 외지에서 생활하는 자녀의 반찬 준비 및 많은 가족 모임

〈표 7〉 부엌에 추가로 필요 항목 (N=100)

추가 시설	빈도(%)
가전기기	52(52.0)
가구 및 설비	21(21.0)
충분한 수납공간	7(7.0)

시 많은 음식을 준비하여 보관하고, 장류 등을 보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더욱 김치전용냉장고 및 대형 냉장고의 신제품 출시의 영향으로 이에 대한 거주자의 요구가 큰 것으로 여겨진다. 가구 및 설비 측면에서는 전체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도록 현재보다 좋은 식탁, 싱크대, 작업대, 환기시설을 갖추길 요구하였다. 적은 사례이지만, 현재 항상 사용하지는 않으나 과거에 사용했던 그릇이나 대형그릇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도 요구하였다. 따라서 농촌 거주자들이 부엌에서 주로 요구하는 생활재는 식품의 저장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3. 평면 배치상의 요구

과거에 비해 부엌공간의 실내화로 거실과의 관계가 밀접해졌으므로, 평면구조상 부엌, 식당, 거실의 배치관계를 파악한 결과(표 8), L-DK평면형(76.0%)을 가장 많이 요구하였다. 엄인섭(1999)과 최병숙(1995)의 연구에서도 농사일이 바쁠 때 부엌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이를 타인에게 보이기 싫어서, 음식 만드는 주부의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음식 만드는 동안의 냄새 등을 이유로 커튼이나 문 설치 혹은 격인 평면인 L-DK형을 요구하였다. 한편 거주자는 주택에서 1순위 공간으로 안방(32.0%), 2순위 공간으로 부엌(24.5%), 창고 및 곡간, 마당 등의 기타공간(47.8%) 순으로 중요 공간이라 생각한 점으로 보아, 가족이 모이고 손님을 맞이하는 거실을 우선시 하는 도시(류호찬 1998; 조선일보 2000. 1. 4)와는 다르게 부엌이 가족생활의 중심공간으로 거실과 개방(양지안 1999)되기보다는 분리된 작업공간으로 원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농촌의 특성상 마

당 및 창고의 외부공간의 중요성은 비일상적인 부엌일과 관련이 있는 제 2부엌과의 연계성도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농촌 부엌공간이 도시의 입식형 부엌을 모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거주자의 평가 및 요구를 통해 농촌의 입식형 부엌을 진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 1) 전라북도 농촌지역의 부엌공간 및 생활 실태를 분석한 결과, 10여년 전에 예측한대로 부엌의 입식화 현상이 뚜렷하였고, 명절 때 가족모임을 위한 음식장만과 고유의 김장·장 담그기 일은 지속되나, 그 외 농사일이나 비일상 잔치 등을 위한 음식장만은 점차 사회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부엌공간에 대해 거주자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며, 계획 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편리한 작업과 관련된 기능성 측면이었다. 농촌 부엌의 기능성은 부엌공간 뿐 아니라 마당과 연계되는 제 2부엌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일상적인 일 이외 가족모임과 김장·장담그기의 비일상적인 부엌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함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3) 부엌공간 평가와 관련된 변수를 파악한 결과, 물리적인 부엌 상태를 설명하는 부엌유형, 바닥마감 및 단차, 개조여부 및 형태가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거주자 특성, 비일상적인 부엌일 및 수납공간의 일부도 유의적인 변수로 파악되었다.
- 4) 농촌 거주자는 급배수 설비 및 가열 시설이 갖추어지고 음식물 및 저장식품과 부엌용품을 보관할 수 있으면서 비일상적 부엌일을 수용할 수 있는 제2 부엌의 설치를 가장 많이 요구하였고, 이는 도시와 다른 농촌부엌의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그리고 필요한 부엌의 생활재로 한국의 식생

〈표 8〉 부엌공간과 거실의 평면상 배치 관계

배치 관계	L-DK형		LDK형	계
	거실-부엌 평면격입	거실-부엌 문, 커튼조절	거실-부엌 개방	
빈도 (%)	29 (29.0)	47 (47.0)	24 (24.0)	100 (100.0)

활 특성을 반영한 김치전용냉장고 및 큰 냉장고를 요구하였으므로, 향후 부엌 계획 시에는 이러한 생활제의 설치 공간을 고려해야 하며, 급배수 설비, 가열시설 및 수납공간은 입식부엌과 함께 제 2부엌에서도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평면 배치상 L-DK평면형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농촌의 부엌공간은 도시의 다용도실과는 차이가 있는 제2부엌과 평면적으로 연계되어 가족중심의 생활 및 고유 식생활 문화를 계승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더우기 부엌공간은 여성의 작업공간으로써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식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방향으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 참고문헌

- 1) 구난숙(1995). 대전지역 대학생들의 한국 전통음식에 대한 인식 및 기호도 조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0(4). 364-365.
- 2) 김광언(1997). 한국의 부엌. 대원사.
- 3) 김태련, 장휘숙(1987). 발달심리학. 박영사.
- 4) 류호찬(1998). 신세대 부부를 위한 부엌가구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안경환(1989). 거주후 주거환경평가 방법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6) 안옥희, 윤재웅, 배정인(2000). 주거학의 이해. 기문당.
- 7) 양지안(1999). 부엌디자인 개선을 위한 생활경험 및 요구조사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엄인섭(1999). 농촌주택의 공간이용 및 형태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5(8). 49-57.
- 9) 유옥순, 윤복자(1989). 농촌주택의 부엌공간 변화에 따른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3). 103-115.
- 10) 윤복자, 박영순, 유옥순, 신영숙, 박남희, 조명은(1998). 서울시 거주자의 부엌기기의 보유현황 및 수요예측. 한국주거학회지. 9(1). 87-97.
- 11) 이경애, 장영애, 김우경(1993). 남녀대학생들의 전통음식에 대한 지식 및 평가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4). 190-191.
- 12) 이현정(1994). 도시주택의 부엌 유형 분석.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3) 이 훈(1985). 주거환경의 체계적 평가방법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4) 지 순, 윤복자, 윤정숙, 유영희, 최병숙(1991). 농촌부엌 개선 및 표준화에 관한 연구(I). 대한가정학회지. 29(1). 71-96.
- 15) 지 순, 윤복자, 윤정숙, 최병숙, 박은선(1991). 농촌부엌 개선 및 표준화에 관한 연구(II). 대한가정학회지. 29(3). 97-111.
- 16) 전영미(2000). 농촌 문화마을의 주거환경 실태와 주관적 평가.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7) 최병숙(1995). 농촌주택의 계획방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8) 조선일보(1995). 중상류층 병원영안실 이용 급증. 10. 25. 사회면.
- 19) 조선일보(2000). 주부 열명중 여덟명 "기실 한번 바꿔 봤으면". 1. 4. 생활면.
- 20) Ryou, O. S., & B. S. Choi(1999). The comparison of the kitchen space reflected on the rural living and social concerns: Missouri State, U. S. & Chonbuk Province, South Korea. Housing Research Journal, 10(3). 127-136.